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 <small>뿐입니다</small>
		배포일자	2023년 4월 11일(화) 총 2매	
담당 부서	월미공원사업소	담 당 자	• 월미공원팀장 • 담당자	오순자 ☎440-5941 유탁경 ☎440-5944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월미공원, 자연과 어우러진 빛의 공간으로 탈바꿈
- 월미도, 개항장과 연계 원도심 야간관광 명소 기대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중·동구 원도심 대표 명소인 월미공원에 아름다운 야경연출로 월미권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4월부터 야간 경관 조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월미공원 내 전통 정원, 해경 함정, 전망대, 둘레길을 보행자가 편안하게 산책하도록 공원 등을 비롯해 불라드등, 수중등을 설치했다.

또한, 이용객이 집중되는 공간에 설치된 포토존과 은하수 조명, 이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바닥 영상이 변화되는 인터랙티브 조명은 볼거리와 재미를 제공하며 매일 오후 9시까지 점등된다.

아울러, 월미전망대에서는 인천 시내를 물론 서해 바다와 인천항, 서해안 낙조, 인천국제공항, 인천대교 등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으며, 둘레길은 숲이 주는 아늑함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

최종순 시 월미공원사업소장은 “월미공원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산과 바다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야간이 더 멋진 매력적인 공원, 월미도, 개항장과 연계된 원도심 야간관광 명소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 고 말했다.

□ 월미공원 야간경관 주요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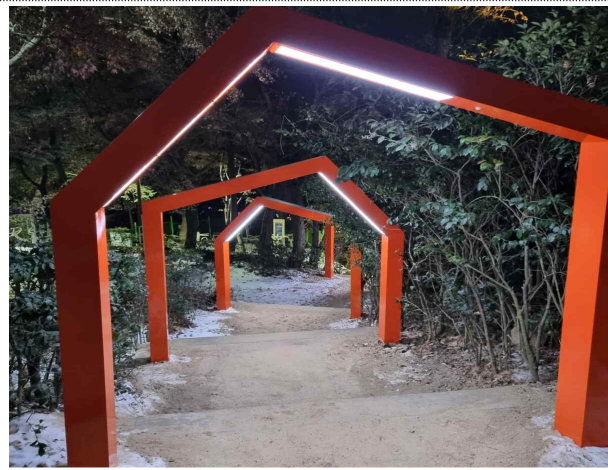
양진당



국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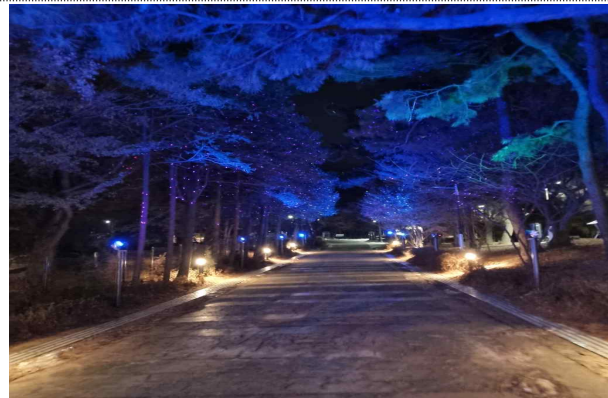
전망대



월미노을길



초승달 포토존



달빛누리길